

## 마르코 복음서 4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마태 13,1-9; 루카 8,4-8)

- 1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물에 그대로 있었다.
-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 3 “자, 들어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 9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sup>1)</sup>

1) 마태오 복음 13,1-9 해설 참조.

2) ‘어떤 것’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결실을 열거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여건만 갖추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각 씨앗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sup>2)</sup>

3) ‘들을 귀’가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반성해야 하며,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한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마태 13,10-17; 루카 8,9-10)

- 10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 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 12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1) 신명 29,3 :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2)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0쪽, 각주 4.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 1) 마태오 복음 13,10-17 해설 참조.
- 2) “둘레에 있는 이들”(10절) 은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군중이나 “바깥사람들”과는 구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미리 나타낸다.<sup>3)</sup>
- 3) “바깥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유다인들을 가리킨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 않아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뜻하게 된다.<sup>4)</sup>
- 4) 예수님의 비유에는 표면적 내용과 내면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비유의 표면적 내용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내면적 가르침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계시가 있어야 한다. 곧 그 내면적인 ‘신비’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분 나라의 도래에 관한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곧 신비를 알아들일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것이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마태 13,18-23; 루카 8,11-15)**

- 13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 14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 15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 가 버린다.
- 16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 17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 18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 19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 20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태오 복음 13,18-23 해설 참조.

3)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0쪽, 각주 8 참조.

4)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0-71쪽, 각주 11.

## 등불의 비유(루카 8,16-18)

- 21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22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23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24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25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 1) “등불”은 말씀이다. 빛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듯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드러나야 한다.
- 2) “가진 자”는 말씀을 새겨듣고 행하는 자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더욱 성장한다. 하지만 “없는 자”는 듣고도 행하지 않기에, 가지고 있는 은총마저 소멸한다.

##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 26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27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댈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 1)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는 씨앗은, 수확으로 그려지는 하느님 나라의 최종적 설립까지 이어지는 신비를 드러낸다. 여기서 씨뿌리는 사람이 곧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2)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 것은 지상 교회의 성장을 상징하며, 낱알이 영그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상징한다.
- 3) 씨를 뿌리신 하느님께서 수확 때에 사람들의 행실을 심판하신다.

## 겨자씨의 비유(마태 13,31-32; 루카 13,18-19)

- 30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32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마태오 복음 13,31-32 해설 참조.

####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마태 13,34-35)

3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34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1) 마태오 복음 13,34-35 해설 참조.

2) 군중에게는 비유를 들어 표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담고 있는 내면의 신비를 풀이해 주신 것이다.

#### 풍랑을 가라앉히시다(마태 8,23-27; 루카 8,22-25)

35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37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1)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는 것은, 그들에게 군중이 없는 곳에서 특별한 가르침과 권능을 보여주시고자 함이다.<sup>5)</sup>

---

5)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3쪽, 각주 25 참조.

- 2) 요동치는 바다는 사탄의 공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공격을 당신의 말씀(39절)으로 제압하신다.<sup>6)</sup>
- 3) ‘믿음’(40절) 은 예수님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sup>7)</sup>
- 4) 마태오 복음 8.23-27 해설 참조.

---

6)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3쪽, 각주 30.

7)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3쪽, 각주 31.